

911테러 이후 최근 뉴욕의 테러동향

올해 12월 11일 하루 약 20 여만 명이 오가는 뉴욕 맨하튼의 타임스퀘어 인근 8번 애비뉴 42번가 포트 오소리티(Port Authority) 버스터미널에서 방글라데시 태생의 27살 아카예드 올라라는 용의자가 몸에 사제 파이프 폭탄을 묶어 폭발시킨 사고로 용의자를 포함한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보다 6주 전인 10월 31일 911테러가 발생한 월드트레이드센터 인근 로어 맨하튼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사이폴로 사이포브가 트럭으로 무고한 행인을 치어 8명이 사망하고, 용의자 포함 12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2001년 911테러 발생 이후 미국은 테러대책법인 “PATRIOT Act(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를 제정하여 시행한 바¹⁾ 있고,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²⁾를 창설하였다. 특히, 911테러 발생지역인 뉴욕의 경우 9·11테러 이후 뉴욕 경찰청(NYPD)에 대테러와 정보부서를 신설하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등 테러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그동안 뉴욕은 비교적 테러로부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작년 9월 17일 맨하튼 첼시에서 압력밥솥 폭발로 보이는 테러 사건이 발생하여 29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올해 들어 앞서 언급한 2건의

1) 동 법은 테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시민의 자유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2001년 10월 26일 제정되었다가 권한 남용 등에 대한 반발로 2015년 6월 폐지되었음.

2) 국토안보부는 911테러 이후 기존의 22개 국내 안보 관련 조직들을 통합하여 2002년 11월 창설되었는 바, 장래 발생 가능한 테러공격으로부터 국가와 미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1차적 임무이며, 연방·주·지방정부 부서 및 민간부문과의 공조 등을 담당함.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최근 뉴욕도 이제 테러로부터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 12월 발생한 포트 오소리티 폭발테러 용의자는 수니파 급진 무장 세력 이슬람국가(IS)의 영향을 받았고, 10월 발생한 트럭돌진 테러 용의자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추종자인 것으로 보이는 바, 이처럼 최근의 테러는 알카에다나 IS 등이 주도하는 조직적인 테러보다 일명 ‘Lone Wolf’(‘외로운 늑대’형 테러)라는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하고 모방하는 자생적 테러여서 탐지가 어렵고 예방이 힘든 문제가 있다.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첫 번째 대규모 테러인 올해 10월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인근 로어 맨하튼 트럭돌진 테러는 수만 명이 참가하는 할로윈 데이 퍼레이드를 앞둔 시각에 트럭으로 자전거도로를 덮친 것이었고, 12월의 포트 오소리티 테러는 폭발물이 일부만 작동하여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수많은 인파가 이용하는 지하철과 버스를 연결하는 환승터미널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뉴욕시민들에게 테러에 대한 충격과 불안을 증폭시켰다.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공항 및 미국행 항공기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일부 이슬람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정책을 실시하는 등 테러방지조치를 확대하여 왔으나,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테러위협으로 인하여 뉴욕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또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테러의 위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와 문화의 중심도시이고,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뉴

육은 언제나 테러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이며, 타임스퀘어, 월 스트리트, 록펠러센터 등 맨하튼의 주요 관광지는 물론, 특히 하루 평균 520만명이 이용하는 뉴욕의 지하철은 대량 살상을 노리는 테러범들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NYPD 등도 벌써부터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주요 역 곳곳에 CCTV 설치, 무작위 수색 실시, 화학물질 탐지 정밀장비 사용, 현장훈련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테러에 대한 경계심 고취, 수상한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신고 강화 등 일상생활에서 테러에 대비한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2월 20일
뉴욕주재관 강 대 훈